

제 45회 이사회 회의록

2023. 9. 7(목)

(사)롯데삼동복지재단

이사회 회의록

I. 기본사항

1. 회의 일시	2023년 9월 7일(목) 11:00
2. 회의 장소	롯데호텔 소공동 중식당 도림
3. 재적 임원	이사 7명, 감사 2명
4. 출석 임원	이사 : 장혜선, 조돈영, 홍익태, 한진우, 남상응, 김성화, 정귀옥 감사 : 김종호, 김도성
5. 결석 임원	이사 : 없음 감사 : 없음
6. 기록 및 보고	이기현 차장, 김충훈 대리

II. 회의 안건

구분	안건
의결 안건	제1호 안건: 기본 재산 중 채권 만기에 따른 대체 채권 매입의 건

III. 회의록

발언자	회의 진행 관련 의사록
이기현 차장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이사회에 참석해주신 임원분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사회 의 식순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회선언과 회의 안건에 대한 브리핑을 받으시고 나서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 진행, 그 다음 질의 및 의견 말씀을 나누시고 나서 폐회 하는 순으로 진행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장혜선 의장님께서 개회선언을 해 주시겠습니다.
발언자	회의 진행 관련 의사록
장혜선 의장	<p>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임원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p> <p>오늘 이사회는 재적이사 7명중 7명과 감사 2명이 참석하여 이사회 개의 정족수에 달하므로 합법적으로 성원되었습니다.</p>
이기현 차장	<p>그럼 먼저 이번 이사회는 안전별로 사무국에서 세부 내용을 먼저 설명드리고 심의하시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p> <p>오늘의 예정된 심의 안건은 총 1건입니다.</p> <p>제1호 기본 재산 채권 만기에 따른 대체 채권 매입의 건</p> <p>이렇게 총 1건에 대하여 브리핑 받으신 후 의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p>
이기현 차장	<p>제 1호 안건 기본재산 채권 만기에 따른 대체채권 매입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p> <p>당 해단의 기본 재산 중 10월 25일 만기되는 외환은행 하이브리드 채권(36-10이30잡-25(신중)) 10,378,243,334원을 대체할 신규 채권 매입의 건입니다.</p> <p>채권을 선정하는데 있어 기준은 안정성과 수익률로서, 우선 국내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1금융권의 Main 은행 중에 수익률이 높은 상품으로 선별하였습니다. 지방은행과 보험사는 수익률이 조금 더 높은 경우도 있지만, 안정성면에서 Main 은행의 상품으로 선정하였습니다.</p> <p>여러 채권 상품 중 적합한 상품을 선별하는데 있어, 이번 건도 감사님께 적절한 상품인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님 의견을 간단히 말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p>
김종호 감사	<p>사전에 검토한 과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률이 높으면 최고냐. 반드시 수익률이 높은 것이 최우선은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것은 회수 가능성에 의문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 각도에서, 채권을 발행한 기관의 신용 등급이 뭔가, 또 그 기관의 재무안정성이 어떤지, 그런 부분이 선정기준의 1번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p> <p>그 다음 두번째로 그 기관이 얼마나 신뢰가 있고, reputation이 일반대중의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느냐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익률이 높은 곳을 선택해야 하지 않느냐는 합니다. 이 세가지 관점에서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 하고 김도성 감사와 사무국의 이기현 차장과 대화를 나누며 기준을 잡았습니다.</p>

	<p>채권 상품에 대한 설명은 사무국에서 설명을 해주었으면 좋겠으며, 첫째 채권 발행 기관의 재무 안정성에 대해 설명해주시고, 그 수익률이 어떤 것인지, 발행일이 서로 다른 부분이 있는 것 등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p>
<p>이기현 차장</p>	<p>이번 재산 변경 건을 말씀드리자면 사무국에서 총 4가지 상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p> <p>먼저 발행 기관의 reputation이 신용 등급과도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1차적으로는 신용등급 자체가 모두 AA 등급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AA+부터 AA-까지 되어 있지만 등급으로 보자면 AA 등급이기 때문에 주무관청에서 요구하는 최소 등급을 충족한 상품들입니다. 그리고 같은 등급이라고 하여도, 발행 기관에 따라 그 발행 주체의 reputation을 감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p> <p>금리 같은 경우, 우리금융이 Main 은행임에도 불구하고 DGB 금융지주의 상품이 소폭 높습니다. 지역난방공사 등 각종 공사채의 경우에도, 우리금융 등의 4대 은행 보다 높게 발행됩니다. 그렇다 하여도 사무국에서 볼 때는 지방은행이라든지 공사채를 선택함에 있어 같은 AA 등급이긴 하지만 조금 더 안정적이고 시중 평가, 즉 reputation이 좋다고 생각되는 Main은행을 선택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우리금융지주 조건부자본증권 상품이 제일 낫다고 판단이 됩니다.</p> <p>현재 금리추세를 보자면 미국에서 더 이상 금리를 올리지 않는다는 예상이 더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금리가 더 오르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p> <p>현재로서는 우리금융지주 조건부자본증권 표면금리 5.04% 상품이 다른 채권 상품대비 안정성과 수익률 등을 종합하였을 때 제일 나은 상품이라 생각이 됩니다.</p>
<p>김도성 감사</p>	<p>이사회에서 설명을 해야 하는 것이 조건부자본증권에 투자를 해서 원금에 손실을 입으면 안되기 때문에 원금 손실은 어떤 경우에 볼 수 있는지 상황을 설명해 주시고, 콜옵션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가능성도 과거의 선례를 가지고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p>

<p>이기현 차장</p>	<p>보통 채권의 위험성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 상황에 해당되는 부실 상황에 오게 되었을 경우에는 원금이 상각이 되거나 이자 지급이 정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p> <p>우리금융지주 조건부자본증권의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부실 금융 기관 평가 지정 가능성 부분에 대해서 기준 비율이 4%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원금 상각 가능성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금융지주의 경우 지급 현재 총자본비율(BIS)이 15.6%로 이미 상당한 안정성을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p> <p>그리고 이자지급정지 가능성의 경우도, 그 기준에 해당이 되려면 8% 미만일 경우엔 이자 지급이 정지 가능성이 생깁니다. 하지만 우리금융지주의 경우 현재 총자본비율이 15.6%이기 때문에 상당히 건전한 금융지주로 볼 수 있습니다.</p> <p>콜 행사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 기본 1차 콜은 모두 5년 주기로 되어있습니다. 5년 후에는 발행주체에서 채권을 되사간다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콜을 기본적으로 행사한다는 전제조건으로 생각하고 매입을 하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콜이 행사가 안되었을 경우엔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은, 우리금융지주와 같은 경우 상당히 건전성을 확보한 상태로 콜 행사가 안 될 경우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 경우가 지금까지 사례가 있었느냐 하는 것은 우리금융지주에서 2009년 세계금융위기 당시 재정건정성이 어려웠던 경우 콜 행사를 하지 않는다고 했다가 금융당국 등 시장의 압박에 상환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의 우리금융지주와 지금의 우리금융지주는 환골탈태한 전혀 다른 기업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작년 흥국생명에서도 동일한 사례가 있었으나 역시 최종 콜 행사를 하였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금융지주 조건부자본증권 상품이 콜 행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p>
<p>김도성 감사</p>	<p>사무국의 설명은 이런 것 같습니다. 자산은 굉장히 건전한 것 같다. 충분히 자본을 쌓아놨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자본적정성에 대해서도 좋은 것 같다. 콜 옵션을 행사 안했을 경우에는 원금을 회수 못할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그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큰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는 설명인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와 김종호 감사님의 의견은 일치하지 않나 싶습니다.</p>

<p>장혜선 의장</p>	<p>만기가 되는 상품의 표면금리가 5.45%에서 이번 우리금융지주 상품의 경우 5.04%로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모두 잘 이해하셨는지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p> <p>설명은 사무국에서 했는데 모두 잘 이해하셨는지, 더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p> <p>전 현재 금리가 높아서 10월에 만기가 되는 상품보다 더 이자율이 높을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오히려 더 낮은 부분이, 미국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추세의 변경이 있어서 그런 것이니 그 부분은 정확히 이해를 해주시고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p>
<p>이기현 차장</p>	<p>한가지 더 덧붙여 말하자면, 현재 채권시장은 기존 유통물과 신규 채권 상품 모두 채권 상품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번 만기가 되는 채권은 만기가 10월 25일로 아직 기간이 한달 이상 남아있습니다. 채권 시장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서 만약 변수가 발생한다면 금일 결의한 상품과 유사하거나 더 높은 조건의 상품이 있을 경우, 그 상품으로 대체가 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타 상품으로 대체시 임원분들께 해당 내용을 통보하고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려 사인을 받아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p>
<p>장혜선 의장</p>	<p>아직 한달 정도의 기간이 있어서, 또 어떤 변동이 있을 지 모르니 사무국에서 더 조사하고 함께 의논해서 더 좋은 상품이 나올 경우, 해당 상품으로 진행해야 하니 지속적으로 채권 시장을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p>
<p>김종호 감사</p>	<p>채권 시장이 국내도 그렇고 앞으로 오르진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많지만, 아직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 더 살펴봐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세가지 조건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금융지주 조건부자본증권으로 선정하고, 상황이 바뀌었을 때는 변수를 감안해서 추가로 결정할 수 있도록 안건 처리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p>
<p>조돈영 이사</p>	<p>그럼 우리금융지주 조건부자본증권이 잠정적이라는 건가요?</p>
<p>이기현 차장</p>	<p>네. 맞습니다만 현재 선정한 우리금융지주 조건부자본증권 대신 다른 상품으로 변경될 확률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p>

한진우 이사	이 상품으로 하시고, 그 사이에 더 좋은 상품이 나온다면 그때 임원진에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장혜선 의장	10월에 만기가 되는 채권에 대한 대체 채권 매입에 관한 건은, 사무국에서 잘 설명하였고 감사님께서 잘 검토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이 안건에 대해서 더하실 말씀이 있으신지요.
이사 전원	없습니다.
장혜선 의장	그러면 이 안건은 잠정적으로 우리금융지주 채권으로 기존 채권 만기 후 동일 만기 금액인 10,378,243,334원으로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공식적인 이사회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5회 정기 이사회를 마치고 회의결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본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참석한 임원이 다음과 같이 발인하다. 끝

2023년 9월 7일

이	사	회	의	장	장	혜		
			이	사	조	돈		
			이	사	홍	익		
			이	사	남	상		
			이	사	한	진	우	
			이	사	정	귀	욱	

이 사 김 성 회 

감 사 김 종 호 

감 사 김 도 성 

